

아무런 말[言]도 없이 달리는 말[馬]도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인간 채동구

채동구는 한 마디로 웃기는 인간이다.

채동구가 누군데?

어떻게 웃기는데?

채동구가 얼마나 웃기는 인간인지 그럼, 채동구를 한번 만나보자.

채동구는 하늘이 새파란 유리처럼 맑은 겨울, 선조 29년(1596년) 정월 열이렛날에 세상에 첫울음을 터뜨렸다. 태어난 곳은 고령 만구산 아래 웅기중기 자리잡은 마을 제일 왼편에 있는 집이었다. 동구는 일곱 살 나던 해에 서당에 갔다. 첫날부터 훈장이 설사를 만나 변소를 들락거리는 사이에 아이들이 말 노릇을 좀 하라고 했더니, “나는 사람이다. 말 아니다” 라고 무지막지하게 소리를 질러 큰 목청을 확실히 각인시킨다.

동구 나이 열네 살에 아버지 천일이 죽었다. 동구의 어머니는 전란중에 피난을 왔다가 하나라도 입을 덜러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양가의 처녀로서는 억울하게 천일의 후처로 들어온 여자였다. 아버지가 죽자 전처의 소생인 장남 동정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어머니마저 죽었다.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아버지의 별세와 혼인, 어머니의 별세에 따르는 혹독한 절차를 통과하느라 동구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물론 동구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다. 남들도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 과거에 합격도 하고 관직에도 나아간다. 그러나 채동구는 책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재능이 없었다.

동구가 스물여덟 살 되던 해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형님! 이제부터는 제가 마음 놓고 과거공부를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거에 입격을 해도 걱정, 낙방을 해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폐주와 같은 혼군 아래에서 정승 판서를 한들 마음이 편하였겠습니까.”

동정은 혀를 꼴꼴 찼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까지 일부러 과거에 떨어졌다는 말이 더냐.”

“뭘 꼭 그런 건 아니지요만, 하여튼 앞으로 벼슬살이하는 사람들도 떳떳하게 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크게 되어 크게 갚으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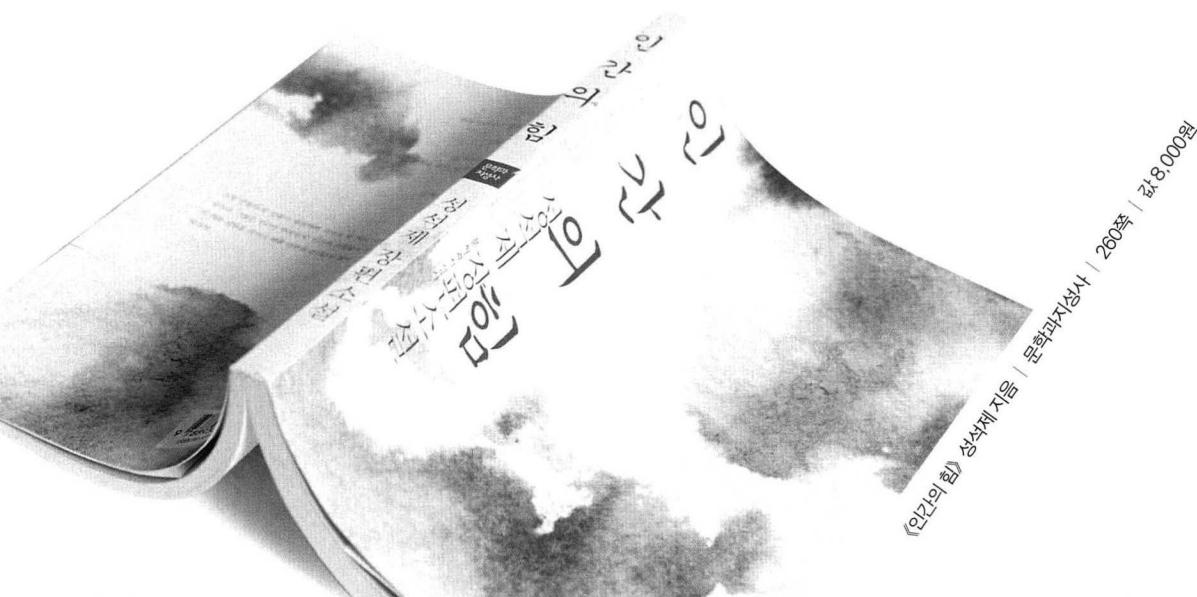
동구가 말한 큰 일이란 상소를 올리는 일이었다. 동구는 우선 종이하고 먹 좀 사달라고 했다. 종이는 백추지, 붓은 낭모필에 먹은 해주 후철이 좋다는 등 따지기도 깐깐하게 따졌다. 동정은 다시는 내 집에 발길도 하지 말라며 동구를 내쳤다.

동구가 상소를 쓰기도 전에 해가 바뀌어 평안병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드디어 십년대환의 흙 속에 엎드려 있던 이무기가 비를 만났도다.”

동구는 오랜만에 두 주먹을 쥐고 동정의 집으로 내달았다. 채담의 유품인 환도를 찾아 뛰쳐나왔다. 동구는 환도를 칼집에서 뽑으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가지꾸나, 바람아. 때가 왔다, 구름아. 뒤에서 나만 밀어라.”
인조 2년, 동구가 만 스물여덟이 되는 해였다. 동구는 집에서 입던



베옷에 도포를 걸치고 짙신 바람으로 길을 나섰다. 준비한 것이라고는 붉은 쌀 한 자루에 된장 약간, 형겁으로 친친 감은 환도가 전부였다. 그 외에는 그저 혈기, 선비의 맨주먹과 가슴의 붉은 피였다.

동구는 오로지 임금과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뜨거운 의기로 걸어갔다. 말로 못할 설움을 받으며 동구가 마침내 공주 감영에 차려진 행재소(임금이 먼 곳에 거동할 때 머무르는 곳)에 도달했을 때는 그러나, 이괄의 난은 이미 진압되어 있었다.

“네가 이 집안을 말아먹을 작정을 했느냐. 반정공신간에 녹훈을 가지고 일어난 싸움에 네가 무엇이라고 끼여든다는 말이나. 혹 반란이 성공했으면 네 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멸문을 당할 뻔했지 않느냐.”

거지꼴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동구는 밥 대신 옥부터 먼저 먹었다. 그래도 동구는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

“형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했을 뿐이외다.”

인조 5년(1627년), 동구 나이 서른한 살, 청태종이 3만의 군사로 조선을 침공했다. 고령 관아에 교서가 붙었다.

“지금이 바로 충신열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조서를 읽고 혈성으로 의리에 보답할 때이다.”

충신열사가 바로 자신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동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신과 뜻을 함께 할 열혈지사를 모집했다. 사람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동구는 또 혼자 길을 떠났다. 강화도는 공주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멀었다. 잠자리는 닳치는 대로 마련했고, 심지어 굴뚝을 끼안고 잠을 잔 적도 있었다. 평생 겪지 못한 막

심한 고생을 하며 강화도에 도착했으나, 이미 화의가 성립된 후였다. 화의가 성립된 후, 임금은 영을 내려 장졸들을 돌아가게 했다. 동구는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허망한 출도였다.

자신이 두 번이나 집을 나서서 칼을 쥐고 임금을 찾아간 것이 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가문과 조상을 빛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동구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문중의 냉대뿐이었다. 가문이 등을 돌리니 생존에 막대한 지장이 왔다. 동구는 동정으로부터 파문을 선언당한 그 날부터 우선 값비싼 종이에 먹을 문혀 상소문 쓰는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죽에 사는 이원겸이 찾아왔다. 이원겸은 동구의 선비됨을 칭찬하며 수시로 동구의 집을 들락거리게 되었다.

인조14년(1636년), 청태종이 청병 6만8천, 몽골병 3만, 한병 2만 등 도합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동구는 10여 년 간 머리맡을 지켜온 환도를 형겁으로 싸서 행장에 넣었다. 동구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도 하기 싫고 가기 싫고 죽기 싫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도 동구는 또 떠났다. 어린 시절 동문수학했던, 병신이라고 놀림받는 명선과 함께, 동구 나이 어느덧 마흔이 넘어 있었다.

가까스로 성에 도착했으나 들어갈 방도가 없었다. 혹시 산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동구가 살펴보는 사이에 밥 짓던 명선이 죽었다. 청군의 죽창에 찔려 죽었다. 명선이 죽었든 말든, 동구가 온갖 고초를 겪든 말든 나라 일은 알아서 진행되었다. 인조는 오랑캐가 제시한 열한 가지의 굴욕적인 항복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글을 쓴 이명랑은 1997년 문학무크지 <새로운>에 시 <에피스와르의 꽃> 외 2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 연작소설집 <삼오식당>을 냈으며, 2002년 문예진흥원의 '내일을 여는 젊은 문학인'

창작지원금'을 수혜했다. 현재 창작활동과 함께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문예교사활동을 하고 있다.

삼전도에서 오랑캐의 칸에게 굴욕적인 삼배구고두례를 올렸다. 고향까지 돌아오는 내내 동구는 치를 떨고 피눈물을 흘렸다.

동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드러누웠다. 친지들과 벗들이 찾아와 동구를 어루만지고 또한 서로 붙들고 울었다. 어느새 동구는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한 비극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장본인으로서, 굴욕적인 항복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과 나라를 지키려 먼 곳까지 달려간 동구의 실행과 의지를 흠모하는 젊은 선비들이 문방사우를 들고 동구의 집에 모였다. 그리하여 동구는 고령을 대표해 임금께 올리는 상소를 쓰게 되었다.

“상소를 살펴보니 모두 가상하다. 나라를 위한 충성과 조목 조목 진술한 일들은 마땅히 마음에 두고 실시하겠다”는 19자의 비답이 내려왔다. 동구는 황홀했다. 비답 한 글자 한 글자에 온몸이 녹아나는 듯했다. 포의 선비로서 상소를 올려 임금에게 직접 비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고령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그는 이제 고령이 낸 인물이었다.

그 뒤, 동구는 한 번 더 집을 나갔다. 횡의를 하는 신하를 오랑캐에게 내놓지 않으면 나라에 큰 변이 있을 것이라는 현감의 말에 동구는 행장을 꾸려 한성으로 떠났다.

“너는 직임을 맡아 벼슬을 한 것도 아니니, 반드시 죽으러 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도 네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니 의롭고 가상하다.”

임금은 남몰래 한글로 쓴 편지와 함께 백금 150냥을 동구에

게 내렸다. 그리하여 동구는 죽으러 떠나게 되었다. 다행히 심양으로 끌려간 동구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임금은 동구에게 노잣돈을 내리긴 했으나 실적이든 명예적이든 벼슬은 내리지 않았다.

성석제의 소설, 《인간의 힘》의 주인공인 채동구를 만나봤더니 그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인간 이거 왜 그렇게 뻔질나게 집은 나간 거야? 묻고 싶으시죠?

채동구의 후손이자 소설 속 화자인 나도 역시 그제 궁금합니다. 채동구는 왜 집을 나섰는가? 집을 나서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 소설은 채동구의 후손이자 화자인 나의 외숙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나도 수없이 생각해 봤네만 아직 모르겠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어른의 일생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 난 이 어른이 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이 어른은 초치일관해서 당신 가실 길을 가셨네. 남들이 우습다고 하고, 미쳤다고도 했지만 어른은 신념을 지키셨네. 신념이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그 걸 지킨 것, 난 바로 그제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말(言)도 없이, 누가 빌려준 말(馬)도 없이 견고 있을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작가 성석제의 말처럼 저 또한 상식과 현실의 잣대로 재면 웃기는 인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채동구들에게 이 소설을 꼭 한 권씩 나눠주고 싶습니다.

어이, 채동구! 파이팅! 🍀